

“부동층·숨은표에 달렸다” 총공세

**서울시장 보궐선거 D-6...朴·羅 초반빙 점진
오늘부터 여론조사 공표 못해 여론몰이 총력**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초반빙 양상을 보이면서 부동층과 '숨은 표'(여론조사와 실제투표율 간의 격차)의 향배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8일 발표된 KBS, MBC, SBS 방송 3사와 미디어리서치, 코리아리서치, TNS코리아의 공동 여론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박 후보는 40.5%의 지지율을 내며 2.3%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부동층은 무려 21%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는 초반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10% 미만, 많아야 10%

전반위 검증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박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고 부동층이 늘어났다는 판단에 따라 검증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이에 맞서 박 후보 측과 민주당은 박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시하며 본격 공세에 나섰다.

박 후보 선대위의 이상호 대변인은 이날 “나 후보의 재산목록을 보면 2개릿부터 다이아몬드 반지, 시계를 700만원으로 신고했다”며 “보석 전문가들에게 물어본 결과 최상급 2개릿 다이아몬드는 최고 8000만원~1억원이고, 일반 2개릿 다이아몬드의 평균 시가는 약 3000만원대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숨은 표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도 관심사다. 숨은 표는 대부분 집권 여당에 부정적 성향

안철수·박근혜 맞대결 최대관심사

**■ 서울시장 보선 3대 관전포인트
한나라당 ‘네거티브 공세’ 보수층 결집 효과
박·나 후보 승패 갈릴길 ‘투표율 45%’ 주목**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야권 박원순 단일후보가 박근혜의 혼전을 거듭하자 막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박 후보 지원 여부를 비롯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보수층 표 결집 여부 등이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선거 당일 투표율과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한 두 후보 진영 간 네거티브 공방이 어느 후보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도 주목된다.

다. 당장 박 후보는 19일 “또다시(지원을) 부탁드리지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 은 아니지만 앞으로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의 선거지원을 계기로 박원순이 결집할지도 관심거리다. 박 전 대표는 이날까지 7일의 선거운동 기간 무려 4일을 서울시 장 선거 지원에 전력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표가 범보수 진영을 하나로 묶는 기동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많다.

◇‘투표율 45%’ 승패 분기점? =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승패의 분기점으로 ‘투표율 45%’를 주목한다. 투표율 45% 미만이면 나 후보에게, 45%를 넘어면 박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투표율이 45~50%일 경우 극히 미세한 표차로 당락이 갈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선관위가 이날 초 서울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투표 의향 조사에서 적극 투표층은 65%로 나타났다.

통상 실제 투표율이 이보다 20%포인트 정도 낮게 나온 관례를 적용하면 45% 안팎의 투표율이 예상된다. 그만큼 박원 승부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네거티브 격화-효과는=두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하면서 선거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박 후보에 대한 병역·학력·재산 의혹을 잇따라 터뜨려 보수층 결집 효과를 끌어내면서 나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거뒀다.

박 후보 측은 애초 한나라당의 의혹 제기를 네거티브 공세로 규정, 맞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판세 변화에 따라 전략을 수정했다. 박 후보가 최근 “한나라당이 병역비리 분당이고 투기, 위장전입, 탈세, 무패로 얼룩져 있는 정당”이라고 꾸짖는 것도 이 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다.



범야권 박원순 서울시장후보와 한명숙 전 총리가 19일 여의도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지지하는 시민과 기호 10번을 표시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외연투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도가니 관련법’ 본격 심의

법사위 24일 첫 논의... 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등

국회가 다음주부터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도가니 관련법’을 본격 심의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여야 간사협의체를 통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도가니’ 관련법안을 오는 24일 산하 법안심사소위에서 첫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에는 현재 18대 국회에서의

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애인 대상 성폭력에 대해서도 형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을 일반 성폭력과 동일하게 처벌하지 않고 범죄 유형별로 세분화한 뒤 각각에 대해 가장 처벌하는 내용 등이다. 또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일 경우에만 성폭력을 인정. 장애인 대상 사건이 법망을 피해간다는 지적에 따라 ‘항거불능’의 표현을 삭제하거나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등으로 고치는

민주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자 검찰 고발

임태희 실장 등 5명

민주당은 19일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명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이 납득할 책임규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

만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라며 “민주당이 진실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와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은 청와대에 이시형씨가 시가보다 저가 구입한 이유, 국가재산으로 지원한 의혹에 대한 해명, 취득세 신고 납부 내역, 이시형씨가 차입했다는 12억원에 대한 이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

한선교 의원 서면 조사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한선교 의원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였다고 19일 밝혔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이달 초 한 의원에 게 서면조사를 보냈고 일주일 뒤 답을 받았다”며 “수사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면조사를 통해 녹취록 입수 경우, 녹취록 공개 전후 행정, KBS

부채자 신고서 대리 작성

전남선관위 첫 고발 조치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실시되는 화순군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부채자 신고서를 대리해 작성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의 직장에서 친·인척 7명의 부채자 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채자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자신이 거주하는 곳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핑견적은 받지 않습니다.

광주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 454-7722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옆 대인동 소형서점내편)

수완지구 상가 불협 전문

학원·병원·한의원·고급식당 독서실·PC방·노래방·실내골프장

1층 근린생활 2층~7층 까지

20평 부터 200평 까지 분양·임대가능

즉시입주가 가능 시비없음

국민은행 뒤 대방2차 정문 (5,000세대) 신한은행 뒤 마이엘가 아파트 (5,000세대) 롯데마트 앞 대방5차 후문 (7,000세대)

신한공인중개사 ☎062)961-3377

★건축시공해드립니다★

(원룸·상가·고시원·도시형 주택전문)

•수익성상가 •안전한재난중식 •노후보장 •퇴직자 환영

설계·건축·분양 임대 (검토부터 기획마감까지 윈스튜)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해드립니다.

★원룸 상가 기타 건축할 수 있는 토지 항시 구입합니다★

대신종합건설

☎010-6670-9800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선정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대지58평 건물112평
- 감정가 2억6천만 최저가 1억8천만
- 동구 동명동 조대앞 4층상호인 대지66평 건물145평
- 감정가 4억8천만 최저가 3억8천만
- 서구 쌍촌동 3층다가구 대지70평 건물147평
- 감정가 4억2천만 최저가 2억9천만

단독주택

- 광안구 윤남동주택 대지 223평 건물 28평
- 감정가 2억4천만 최저가 1억7천만

근린주택

- 서구 봉성동 3층상가주택 대지99평 건물155평
- 감정가 4억5천만 최저가 3억1천만

상가매매

- 남구 월산동 4층상가주택 대지 34평 건물 76평
- 1층상가 2-3층다가구 4층인집(도시가스, 리모델링)
- 매매가 2억5천만(조정가능)

토지매매

- 무안군 해례면 천장리 임야 1200평 진입로있음
- 관리지역(일부 전) 매매 평당3만5천(조정가능)
-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외기해수욕장 앞 101평
- 계획관리 매매 평당20만원

광주 남구 월산동 구.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